

##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참여유형과 참여기간을 중심으로\*

박 영 미\*\*  
제 갈 돈  
김 병 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 중 어떤 유형이 상대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와 참여기간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인 노인의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해 A도 A시에 거주하는 노인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신뢰도 분석, F검정,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질은 교육형이 준거기준인 교육형에 비해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인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복지형이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이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 참여기간, 노인의 삶의 질

## I. 서론

한국사회의 특징들 중 뚜렷한 점은 소득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편화로 인한 고령화이다. 이러한 고령화에 기인하는 노인문제는 70-80년대를 거치며 국가·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심각성을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2%에 해당하는 613만여 명으로 처음 600만 명을 돌파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745).

\*\* 제 1저자

\*\*\* 교신저자

하였고,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2040년에는 인구 10명 중 3.2명이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통계청, 2015).

특히 고령화와 관련이 깊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인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층은 3배 가까운 수준인 48.4%로 노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빈곤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3.5%보다 네 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2013). 또한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2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29.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9.8명으로 OECD 평균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참여정부는 2004년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혹은 삶의 만족도라는 부수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노인의 탈 빈곤과 소외 극복, 그리고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지닌 다양한 능력과 전문기술을 활용하는데 있다. 이는 정부가 노인의 소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을 하여 노인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소외감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남기철, 2013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중에서 70.9%가 노후에 일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63.9%는 노년기에도 일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거 은퇴가 일회성 사건이었다면 현재는 과정이고, 주된 직업으로부터의 퇴직 이후에 가교일자리(Bridge Job)가 부상하고 있다.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일자리에 남아있어야 결혼관계, 행복감, 건강 등에 긍정적이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시간의 압박도 크지만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한경혜, 2013). 이에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점에 노년기의 일자리와 관련된 노인복지정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은 정책의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높이고 유형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으로 구분되는데, 사업 유형별로 참여자 선발기준과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라서도 효과성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 왔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과 참여기간을 고려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도 A시의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과 참여기간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노인의 삶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궁극적 취지인 참여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노인문제와 활동이론

노인문제는 사회변동과정을 겪으면서 노인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저하되고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서, 노인 스스로나 그 가족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한다.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의 결함이나 그가 속한 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와 사회제도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이다(김명 외, 2004).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성격을 갖는 문제를 뜻한다(김익균, 2002). 여기서 사회적 성격을 갖는 문제란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사회의 다수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에 놓인 비율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로 빈곤, 질병, 고독, 소외 등을 노인문제라고 한다. 통계청이 공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 38.6%, 건강문제 35.5%, 소일거리 없음 4.7%,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3.1%, 외로움·소외감 2.9% 등이 문제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활동이론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생활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노인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이나 생활만족도는 높다는 것이다. 활동이론은 중장년기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노년기에도 유지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노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이어갈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의존성 감소효과와 관련해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의 개념으로 제시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란 장년기 때의 전형적인 활동 패턴을 노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들어 WHO의 영향력 하에 활동적 노화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활동과 건강 간 관계의 중요성과 건강한 노화를 강조한다. 활동적 노화는 노동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넓은 활동 범주에 초점을 두어 완전한 시민으로서 노인의 참여를 강조한다. 활동적 노화의 현대적 개념은 핵심요소인 생산적 노화에 삶의 질과 정치

적, 신체적 복지에 대한 강조를 결합시킨 것을 말한다(최성재 외, 2002).

이렇듯 활동이론은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도움 및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참여로 인한 소외감·외로움을 해소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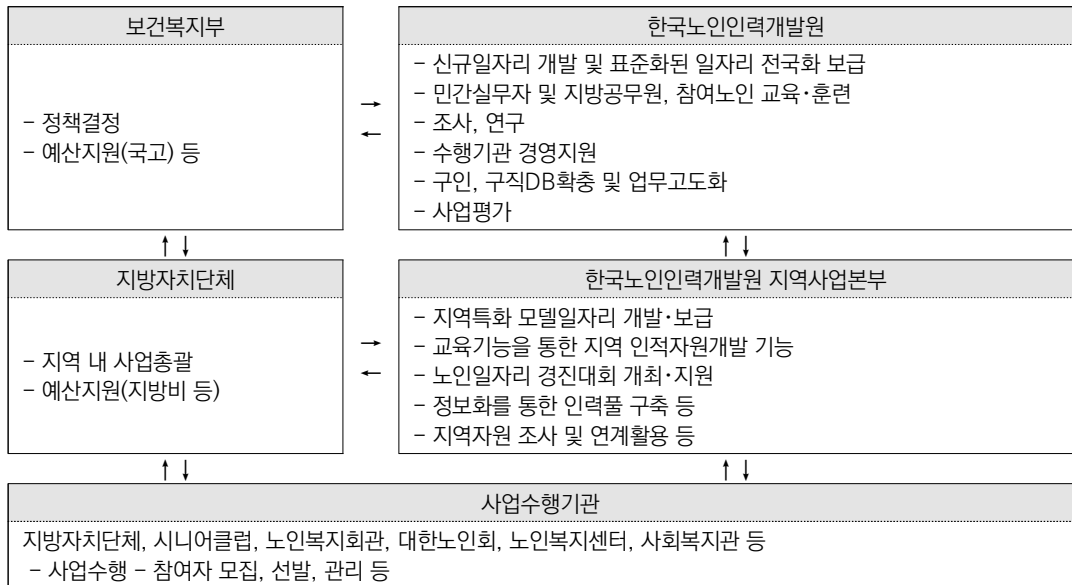
## 2.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 2항,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였다. 이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4).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노인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체계, 유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2)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된다. 사회공헌형 일자리에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속하며,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의 참여기간은 9~12개월,<sup>1)</sup> 인건비는 월 20만원, 부대경비는 12~16만원이 지원된다.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과 인력파견형이 속하는데,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은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되며, 인력파견형은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한다. 인력파견형의 부대경비는 참여자 1인당 연간 10~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은 참여자 1인당 연간 180~200만원의 부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4).

### (1) 공익형

공익형은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이다.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익형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단,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만 60세~64세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액 조사 후 저소득층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지원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이 있다.

### (2) 교육형

교육형은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이다. 노인 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교육형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만60~64세 예외적 참여가능)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가점) 등의 선발 기준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로는 1-3세대 강사 파견사업, 숲생태 해설사업, 노인학대 예방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등이 있다.

1) 참여기간이 끝난 후 신규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선이지만 이들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기존참여자가 지원하여 계속 참여할 수 있다.

### (3) 복지형

복지형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복지형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단, 노노케어사업은 만 60세~64세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액 조사 후 저소득층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로는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청소년보호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이 있다.

### (4) 인력파견형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일자리이다.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인력파견형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만60~64세 예외적 참여가능)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등의 선발 기준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로는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등이 있다.

### (5)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하는 일자리이다.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인력파견형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만60~64세 예외적 참여가능)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등의 선발 기준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로는 공동작업장운영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 택배사업 등이 있다.

## 3)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

기관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및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월 31일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1,215개이다. 그 중 노인복지관이 204개로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 197개, 대한노인회 19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114개로 전체 운영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도 35,127개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61,598개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형 150,298개, 교육형 28,137개, 복지형 49,004개, 시장형 17,685개, 인력파견형 10,397개가 창출되었다.

#### 4) 시니어클럽의 특징 및 A시니어클럽의 사업현황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써 지역사회 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니어클럽의 주요 업무 및 역할로는 지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

A시니어클럽은 A지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 2009년 7월 개관하여 '일을 통한 노인복지 실현'을 목표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A시니어클럽의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7개 사업단 1,099명이 참여하였는데, 사회공헌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17개 사업단 879명의 노인이 참여하였고, 시장진입형인 인력파견형과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은 6개 사업단 172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기관의 자체 운영 중인 고유사업은 4개 사업단 48명의 노인의 참여로 지역적합형, 기업연계형, 사회적 기업, 위탁사업 등이 운영되었다.

공익형·교육형·복지형은 쓰레기 배출지도·계도사업, 시니어해우소 깔꿈이사업, 농촌지역 폐농자재 관리사업, 문화재 관리지원사업, 실버 공공시설 도우미사업이 운영되었으며, 사업 참여기간은 9개월로 참여 노인은 월 20시간 근무하여 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시장형·인력파견형은 은빛수라상 도시락 배달사업, 주차요금 징수사업, 시니어 택배사업, 콩 재배사업, 자원재활용사업, 녹색희망일자리파견사업이 운영되었으며, 참여노인은 월 40시간 정도 근무하고 464천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유형은 연중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계형 일자리로서 주로 경제적 욕구가 높은 노인들에게 소득보전 역할을 충족하여 주는 일자리사업이다. A시니어클럽의 자체 운영 중인 고유사업으로 지역적합형인 행복A알리미사업은 지역관광지 및 기차역, 공원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A시에 대한 유래 및 역사를 안내하며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참여 노인은 월 36시간 근무하여 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기업연계형인 1-3세대 생태체험교실은 한국수자원공사 A권 관리단으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이다. 댐 상류지역 노인들이 지역의 아동 및 시민들에게 생태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여 노인은 월 36시간 근무하여 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행복한 도시락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국가로부터 3년간 인건비 등 운영비와 각종 세제 감면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인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지자체에서 낙동강변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를 대행하여 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통해 참여노인은 주4일, 일6시간 근무하고 64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 3. 노인의 삶의 질

#### 1) 노인의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소득의 증대로 인한 생활의 양적(量的)인 변화만으로는 삶의 풍요함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활의 질적(質的)인 측면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학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된 개념으로써, 객관적인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임근식, 2012). 삶의 질의 의미는 인간생활의 양적 문제가 아닌 질(質)적 문제, 즉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인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 삶의 질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함축적인 개념으로, 삶의 질의 개념에는 균형 잡힌 생태체계와 개인적 발전, 자아실현과 같은 물질적 만족과 주요 욕구를 본질적으로 포함한다. 경제적인 부(富)는 다양한 물질적·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나아가 심리적인 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富)가 행복한 삶, 질 높은 삶과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 혹은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질 높은 삶'이 경제적 요건의 단순 함수만은 아니다. 이는 경제적 부(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송노원,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상태 등의 객관적 생활수준만이 개인의 삶의 질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노인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주관적 평가에 따른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노인의 삶의 질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 2)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활동,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등 심리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윤선이, 2002; 김태현 등, 1999).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70세 미만 노인에 비해 70세 이상 노인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김동진, 2008; 이지연, 2003).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나타난 연구들이 있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이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정, 2001; 조수범, 2010).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 발생 시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노인의 삶의 질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내린 연구와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할수록 삶의 질 또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동호, 2010; 이문수, 2012).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이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또는 재산이 많은 노인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경제적



으로 곤란한 노인들보다 넉넉하거나 보통인 노인들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최윤진, 2008; 윤정선, 2009; 윤은경 외, 2010).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노인은 인간으로서 무엇인가에 공헌하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한 연구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고운숙, 1998; 김연희 외, 2002).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한국노인의 경우 자기효능감, 경제적 만족감, 건강 자부심 등 주관적 변수가 객관적 변수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가 있다(강선경, 2009 재인용; 한석태, 2008). 우울증은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써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허준수 외, 2002; 최은진, 2008).

####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참여기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 유형은 사업운영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참여자 선발기준 등의 측면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노인의 개별적 특성, 사업 참여의 동기, 과거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참여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라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별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소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장형 참여자보다 교육형 참여자의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형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시장형 참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형 참여노인의 삶의 질이 높은 이유으로써 교육형 사업은 자신이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노년기에 체력과 신체기능이 약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체적으로 부담이 덜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참여노인의 주거,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삶의 주변 환경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하였다(최은희, 2007). 또한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따른 안녕감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참여유형에 따라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공익형과 비교할 때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교육형과 타인에게 기여하는 복지형이 안녕감과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권구영·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비교 연구에서 사업유형에 따라 공공참여형 일자리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공익강사형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우울감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홍석관, 2005).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관련해 교육형과 복지형은 인력파견형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익형은 고독감과 심리적 불안요인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시장형은 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인력파견형에 비해 다른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김옥희, 2009). 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사혜진,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긴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참여기간 노인들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다양한 활동 중 소득과 관련된 활동들이 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을 하게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권치영 외, 2007).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과 관련하여 참여기간이 길수록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기간이 장기적일수록 지속적인 소득지원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김옥희,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3년 이상 오래될수록 노인의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인 참여만으로는 정신건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강종수 외, 2007).

기존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유형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며 그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또한 각 연구가 종속변수로 안녕감과 생활만족도를 고려한다든지, 자기효능감과 우울을 고려한다든지 다소 한정된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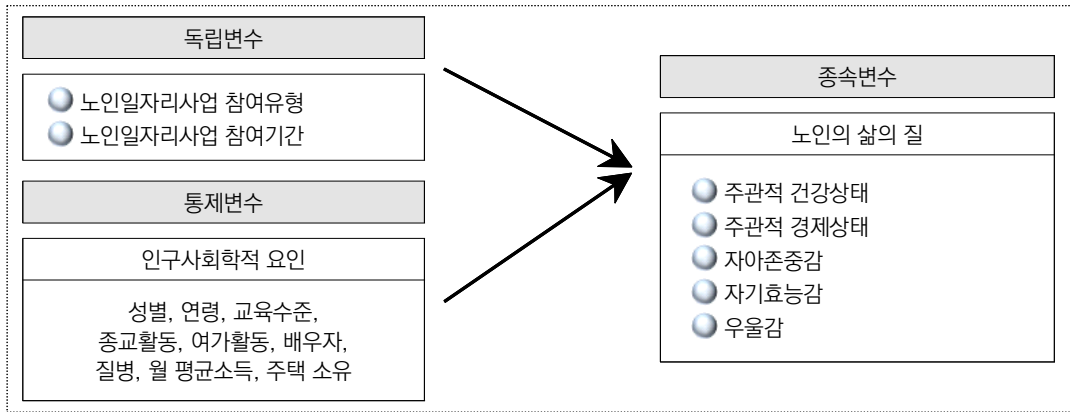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참여기간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려한 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을 구성요소로 한 노인의 삶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을 설명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을 하위구성 요소로 한 노인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른 자료 분석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김준환, 2010).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특성, 즉 유형에 따른 사업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익형은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영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인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형은 전문성을 지닌 노인층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형 참여노인은 개인의 건강 및 경제상태, 교육수준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자신이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영역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형은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참여노인의 자긍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 중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인력파견형은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참여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은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중 운영되는 일자리로서 참여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시니어클럽의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회공헌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시장진입형인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이 운영되었으며, 그리고 기관 자체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고유사업이 운영되었는데, 이 사업단 중에서 화장실관리사업은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참

여자들의 저학력 및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타 유형 참여노인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생산적 노화의 옹호자들은 노인에게 의미 있고 생산적인 역할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지속성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최은희, 2007)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노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특성(참여유형/참여기간)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형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교육형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복지형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시장형 참여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으로 구성된 삶의 질 수준이 높을 것이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설문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특성인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을 중심설명변수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활동, 여가활동, 배우자, 질병, 월 평균소득, 주택 소유로 구성하였다.

〈표 1〉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하위변수
독립변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특성	- 참여유형(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고유사업) - 참여기간(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활동 유무, 여가활동 유무, 배우자 유무, 질병 유무, 월 평균소득, 주택소유 유무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등 다섯 가지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던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건강자가측정척도(Health Self Rating Scale)를 사헤진(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은 자신이 평가하는 현재의 건강상태, 일하면서 느끼는 건강상태의 문제, 동년배와의 건강상태 비교, 1년 전의 건강상태를 현재와 비교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한 척도의 신뢰계수는 0.644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진승(2010)이 노인의 생활환경만족도와 관련된 분석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 하였으며, 이 척도는 생활하면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정도, 현재의 경제상태와 10년전 비교, 다른 노인과의 경제상태 비교,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의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측정한 척도의 신뢰계수는 0.652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란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포함된 의미로써 개인에 대한 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양상이다. 즉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조길용, 2009).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였으며, 최홍권(2010)이 노인의 생활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5개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에 대해 만족 하는가 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한 척도의 신뢰계수는 0.791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하는 신념이다(강선경, 2009 재인용; 한석태, 2008).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도구를 오복자(1994)가 번안하고, 김형수 외(2009)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5개의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중요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가, 복잡한 일이라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치기 않은 문제도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라도 배우려고 노력 하는가 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척도의 신뢰계수는 0.848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우울은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불안 등과 더불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상태로써, 근심, 침울, 무력함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손신영, 2005 재인용). 노인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한 S-GDS(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는 Sheikh와 Yesavage가 기존의 GDS에 대한 진단적 타당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30문항 중 우울증상과 상관관계가 높은 15문항을 선택해서 축소 제작한 것으로써,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가, 평소 기분은

상쾌한 편인가,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드는가, 바깥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은가,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는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조맹제 외, 1999). 본 연구에서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의 신뢰계수는 0.802로 나타났다.

〈표 2〉 종속변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하위변수	범 주	문항수	Cronbach $\alpha$
노인의 삶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	최저 4점에서 최고 14점까지 분포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4	.644
	주관적 경제상태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까지 분포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4	.652
	자아존중감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까지 분포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5	.791
	자기효능감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까지 분포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5	.848
	우울감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 분포하며, 노인 우울증 선별을 위한 최적 절단점은 8점으로 제안됨.	15	.802

\* 신뢰계수 = Cronbach  $\alpha$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A도 A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A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A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후, 일대일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글자해독이 가능한 노인은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였으며, 총 833부를 결과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ackag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계수(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 구성은 남성노인이 40.3%, 여성노인은 59.7%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참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70대'가 71.2%, '80대 이상'이 15.8%, '60대'가 13.0%로 순으로 나타나 '70대' 노인의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5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졸'이 44.5%, '무학'이 21.0%, '중졸'이 19.0%, '고졸'이 12.4%, 대졸 이상이 3.1%로 나타나 '초졸' 노인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활동 여부는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72.0%, 그렇지 않은 노인이 28.0%로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43.7%가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62.3%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 유무는 69.3%가 동거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질병의 유무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7.6%, 없는 경우가 62.4%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유무는 79.7%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수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833)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	336	40.3	주요수입원	근로활동	348	41.8
	여	497	59.7		저축, 퇴직금	23	2.8
연령	60대	108	13.0		자녀의 도움	104	12.5
	70대	593	71.2		국민·노령연금	291	34.9
	80대 이상	132	15.8		공무원·군인·교원연금	34	4.1
교육수준	무학	175	21.0	기타	33	4.0	
	초졸	371	44.5	주요지출원	본인 외 생활비	420	50.4
	중졸	158	19.0		약값 및 의료비	303	36.4
	고졸	103	12.4		문화 활동비	20	2.4
대졸 이상	26	3.1	자녀보조		23	2.8	
종교활동	유	600	72.0		기타	67	8.0
	무	233	28.0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	620	74.4
여가활동	유	364	43.7		51~100만원	146	17.5
	무	469	56.3		101~150만원	36	4.3
배우자	유	519	62.3		151~200만원	21	2.5
	무	314	37.7		201만원 이상	10	1.2
동거가족	유	577	69.3	과거직업	자영업	97	11.6
	무	256	30.7		공무원	58	7.0
질병	유	313	37.6		전업주부	383	46.0
	무	520	62.4		사무직, 기술직	61	7.3
주택소유	유	664	79.7		단순노무직	70	8.4
	무	169	20.3		농·어업	143	17.2
					기타	21	2.5

입원은 '근로활동'이 41.8%, '국민·노령연금'이 34.9%, '자녀의 도움'이 12.5%, '공무원·군인·교원 연금'이 4.1%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요지출원은 '본인 외 생활비'가 50.4%, '약값 및 의료비'가 36.4%, '기타'가 8.0% 순으로 나타나 '본인 외 생활비'와 '약값 및 의료비' 지출에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 평균소득은 '50만원 이하'가 74.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100만원'이 17.5%, '101~150만원'이 4.3%, '151~200만원'이 2.5%, '201만원 이상'이 1.2%를 차지하여, '50만원 이하'인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참여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과거직업은 전업주부 46.0%, 농·어업 17.2%, 자영업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교육형이 10.0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복지형 9.52, 시장형 9.46, 고유사업 9.30, 공익형 9.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3.171, p<.001$ ). 자아존중감은 교육형이 17.76으로 가장 높았고, 시장형 17.63, 복지형 17.44, 공익형 17.15, 고유사업 16.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833, p<.01$ ). 자기효능감은 교육형이 18.01로 가장 높았고, 복지형 17.57, 시장형 17.08, 공익형 16.99, 고유사업 16.5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445, p<.01$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삶의 질 하위 요소인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서 입증되었다. 이는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위유형에 따른 안녕감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하위유형에 따라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공익형에 비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형 및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복지형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권구영 외(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주관적 경제상태는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고유사업, 시장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유형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월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시장형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 또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형 사업이 연중 참여로 운영되어 참여자에게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계형 일자리로서 주로 경제적 욕구가 높은 노인들의 참여가 대부분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우울감은 교육형, 시장형, 고유사업, 복지형, 공익형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질 I

구분	N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공익형	283	9.09(1.48)	13.171***	11.18(2.24)	2.185
교육형	199	10.06(1.45)		11.63(2.21)	
복지형	214	9.52(1.52)		11.17(2.48)	
시장형	94	9.46(1.31)		10.90(1.86)	
고유사업	43	9.30(1.28)		11.04(2.30)	

\* p&lt;.05, \*\* p&lt;.01, \*\*\* p&lt;.001

〈표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질 II

구분	N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공익형	283	17.15(3.08)	3.833**	16.99(3.24)	4.445**	3.16(3.12)	2.025
교육형	199	17.76(2.91)		18.01(3.06)		2.47(2.72)	
복지형	214	17.44(2.51)		17.57(2.82)		3.09(3.17)	
시장형	94	17.63(2.29)		17.08(3.09)		2.58(2.86)	
고유사업	43	16.11(2.48)		16.51(3.34)		2.90(3.22)	

\* p&lt;.05, \*\* p&lt;.01, \*\*\* p&lt;.001

###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3년 이상이 9.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 9.44, 2~3년 9.43, 1~2년 9.36 순으로 나타나 참여기간이 3년 이상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91, p<.05). 자아존중감은 3년 이상이 17.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년 17.57, 1~2년 17.31, 1년 미만 17.16 순으로 나타나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485, p<.1). 자기효능감은 3년 이상이 17.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년 17.45, 1년 미만 17.21, 1~2년 17.20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130, p<.1).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삶의 질 하위 요소인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서 입증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즉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여자의 건강증진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지원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적일수록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김옥희(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주관적 경제상태는 3년 이상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우울감은 3년 이상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I

구분	N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1년 미만	393	9.44(1.64)	3.191**	11.20(2.29)	2.066
1년~2년	175	9.36(1.34)		11.04(2.29)	
2년~3년	126	9.43(1.35)		11.19(2.30)	
3년 이상	139	9.84(1.36)		11.66(2.13)	

\* p<.1, \*\* p<.05, \*\*\* p<.01

〈표 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II

구분	N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1년 미만	393	17.16(2.99)	2.485*	17.21(3.23)	2.130*	3.05(3.06)	1.661
1년~2년	175	17.31(2.69)		17.20(3.48)		3.06(3.14)	
2년~3년	126	17.57(2.33)		17.45(2.47)		2.69(2.95)	
3년 이상	139	17.87(2.77)		17.94(2.71)		2.46(2.84)	

\* p<.1, \*\* p<.05, \*\*\* p<.01

####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활동, 여가활동여부, 배우자, 질병, 월평균소득, 주택소유 유무를 고려하였고, 참여유형에 있어서는 고유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5개의 하위차원을 종속변수로 한 5개의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1, 주관적 경제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2,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3,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4,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5이다. 각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8〉, 〈표 9〉와 같으며, 각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1결과를 보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질병( $\beta=-.201$ ) > 교육형( $\beta=.134$ ) > 여가활동( $\beta=.082$ ) > 배우자( $\beta=.075$ ) > 교육수준( $\beta=.074$ ) > 월평균 소득( $\beta=.072$ )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교육형이 고유사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즉 교육형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참여기간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교육형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고, “가설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

었다.

둘째,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질병( $\beta=-.135$ ) > 교육수준( $\beta=-.134$ ) > 여가활동( $\beta=.129$ ) > 월평균 소득( $\beta=.128$ ) > 주택소유( $\beta=.126$ ) > 종교활동( $\beta=.092$ ) > 참여기간( $\beta=.059$ )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참여기간은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교육형 참여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와, “가설 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시장형 참여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고, “가설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주관적 경제상태 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I

변인	모형 1: 주관적 건강상태			모형 2: 주관적 경제상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상수)	8.810		23.779	9.813		17.100
성별	.031	.010	.245	.091	.020	.460
연령	.058	.021	.581	.054	.013	.354
교육수준	.107	.074	1.703*	-.294	-.134	-3.022***
종교활동	-.019	-.006	-.166	.466	.092	2.686***
여가활동	.247	.082	2.295**	.591	.129	3.541**
배우자	.232	.075	2.008**	-.014	-.003	-.081
질병	-.623	-.201	-6.027***	-.632	-.135	-3.945***
월평균소득	.138	.072	2.001**	.370	.128	3.453***
주택소유	-.183	-.049	-1.447	.709	.126	3.619***
공익형	-.018	-.006	-.079	.424	.088	1.167
교육형	.471	.134	1.879*	.520	.098	1.339
복지형	.087	.025	.359	.258	.050	.691
시장형	.044	.009	.166	-.251	-.035	-.610
참여기간	.058	.044	1.300	.118	.059	1.697*
수정된 R <sup>2</sup>	.118			.073		
F값	8.937***			5.679***		
N	833					

\*더미변수: 성별(남자=1, 여자=0), 종교활동(유=1, 무=0), 여가활동(유=1, 무=0), 배우자(유=1, 무=0), 질병(유=1, 무=0), 주택소유(유=1, 무=0), 기준 참여유형=고유사업

\* p<.1, \*\* p<.05, \*\*\* p<.01

셋째, 모형 3의 결과를 보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복지형( $\beta=.213$ ) > 교육형( $\beta=.204$ ) > 공익형( $\beta=.194$ ) > 시장형( $\beta=.160$ ) > 성별( $\beta=-.085$ ) > 참여기간( $\beta=.081$ ) > 여가활동( $\beta=.080$ ) > 연령( $\beta=-.067$ ) > 주택소유( $\beta=.066$ ) 순으로 나타났다.

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고유사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즉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기간이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유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 고유사업 참여자는 교육형과 복지형 참여자들에 비해 학력이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유사업 가운데 위탁사업인 공중화장실관리사업은 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함으로써 임금을 받고 있는 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소외된 계층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고유사업 참여자의 경우 타 유형 참여자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인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형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교육형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복지형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고, “가설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 또한 채택되었다.

넷째,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성별( $\beta=-.147$ ) > 교육형( $\beta=.141$ ) > 복지형( $\beta=.140$ ) > 질병( $\beta=-.100$ ) > 여가활동( $\beta=.067$ ) > 참여기간( $\beta=.065$ ) > 연령( $\beta=-.064$ )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교육형, 복지형이 고유사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즉 교육형, 복지형이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기간이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교육형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복지형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에 비해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고, “가설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 또한 채택되었다.

다섯째, 모형 5의 결과를 보면 노인의 우울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질병( $\beta=.165$ ) > 여가활동( $\beta=-.146$ ) > 주택소유( $\beta=-.098$ ) > 성별( $\beta=.094$ ) > 참여기간( $\beta=-.074$ )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유형에 따른 노인의 우울감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참여기간은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울감 수준이 낮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한편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선성 통계량인 VIF값을 확인한 결과, 1.046~5.137의 범위로 나타나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II

변인	모형 3: 자아존중감			모형 4: 자기효능감			모형 5: 우울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상수)	16.090		22.179	17.050		21.380	3.490		4.546
성별	-.487	-.085	-1.954*	-.934	-.147	-3.411***	.579	.094	2.197**
연령	-.353	-.067	-1.816*	-.369	-.064	-1.727*	.245	.043	1.191
교육수준	-.047	-.017	-.384	.160	.053	1.183	.056	.019	.434
종교활동	.185	.029	.842	-.044	-.006	-.184	-.055	-.008	-.238
여가활동	.456	.080	2.158**	.421	.067	1.814*	-.893	-.146	-3.996***
배우자	-.089	-.015	-.393	.401	.062	1.610	-.207	-.033	-.863
질병	-.249	-.043	-1.229	-.640	-.100	-2.877***	1.035	.165	4.835***
월평균소득	.090	.025	.666	-.068	-.017	-.459	-.191	-.050	-1.393
주택소유	.461	.066	1.860*	-.154	-.020	-.564	-.740	-.098	-2.823***
공익형	1.154	.194	2.516**	.619	.094	1.227	-.119	-.019	-.245
교육형	1.347	.204	2.742***	1.029	.141	1.906*	.003	.000	.005
복지형	1.373	.213	2.912***	.994	.140	1.917*	.162	.023	.324
시장형	1.425	.160	2.743***	.555	.056	.971	-.254	-.027	-.462
참여기간	.201	.081	2.284**	.179	.065	1.845*	-.197	-.074	-2.116**
수정된 R <sup>2</sup>	.034			.045			.069		
F값	3.104***			3.777***			5.372***		
N	833								

\*더미변수: 성별(남자=1, 여자=0), 종교활동(유=1, 무=0), 여가활동(유=1, 무=0), 배우자(유=1, 무=0), 질병(유=1, 무=0), 주택소유(유=1, 무=0), 기준 참여유형=고유사업

\* p<.1, \*\* p<.05, \*\*\* p<.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빈곤 문제 등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참여유형과 참여기간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을 구성요소로 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형이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인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가운데 이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지닌 노인들의 장점을 활용하는 교육형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형 참여노인이 강사, 해설사로 파견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타 유형의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적다는 점, 그리고

전문능력을 지닌 노인이 무료한 일상을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게 보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자아존중감과 목표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지형이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가운데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형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형 참여노인이 다른 소외계층에게 사회적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참여노인의 자긍심을 증진시키려는 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공익형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고유사업 참여노인보다 높을 것이라 예측한 가설에 따라,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짐작된다. 시장형 참여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소득이 고유사업에 비해 높으나 경제적 욕구(필요성)가 높은 노인들의 참여로 인해 주관적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을 구성요소로 한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검증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유형 가운데 교육형이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인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교육형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성을 지닌 노인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양한 계층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형 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형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형이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소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형 사업에 노인들의 활용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형, 복지형에 비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고유사업의 경우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유사업은 지역시니어클럽의 자체 개발을 통해 수행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로서 참여자의 경우 교육형에 비해 학력이 낮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서, 고유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시니어클럽의 자체 일자리 창출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고유사업 참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

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적 활동에 장기간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유형 가운데 공익형·교육형·복지형은 참여기간이 연 9개월로 종료되며, 참여자 선발기준에 있어서도 매년 신규참여자에게 가점이 주어짐으로 인해 신규참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 나머지는 기존의 참여자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참여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 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참여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나아가 각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A도 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유형 중에서 교육형은 삶의 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참여하였을 경우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강선경. (2009).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우울증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629-643.
- 강종수·김옥희. (2007)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48(0): 279-298.
- 고승덕. (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고운숙. (1998).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 소외감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권구영·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51-78.
- 권오균. (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7-32.
- 권치영·김선웅·임중철·이홍직. (2007).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427-443.
- 김동진. (2008). 일부 지역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측정. 「보건복지포럼」. 135: 57-69.
- 김명·고승덕·서미경·서혜경. (2004). 「노인보건복지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김연희·김기순.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7: 157-189.
- 김옥희. (2009).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 발연구

- 」. 15(4): 323-349.
- 김익균·고승덕·이용환·이현기·장세철. (2002). 「노인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 김준환. (2010). 노인일자리아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인일자리 유형별 분석 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20(0): 147-194.
- 김태현·김동배·김애순·김미혜·이영진.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61-81.
- 김형수·김용섭. (2009). 사회적지지,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7(1): 198-226.
- 남기철. (2013). 노인일자리아업의 현황과 쟁점. 「서울경제」. 94(1).
- 배진승.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사혜진. (2011). 「노인일자리아업 유형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손신영. (2006). 「농촌 노인의 삶의 질 모형구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노원. (2006). 「노년기 성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윤석구. (2012). 「노인의 일자리아업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경기도 과천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윤선이. (2002).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삼척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윤은경·조운득. (2010). 노인의 감정조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4): 1429-1444.
- 윤정선. (2010). 「노인일자리아업 참여 행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이동호. (2010).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1): 93-108.
- 이문수. (2012).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지연. (2003).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노인의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길용. (2009). 「노인대학 참여자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남지역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조맹제·배재남·서국희·함봉진·김장규·이동우·강민희. (1999). DSM-III-R 주요 우울증에 대한 한국어판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48-63.
- 조수범. (2010).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최성재·김태성. (2002). 고령화 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 24(2): 1-41.
- 최수정. (2001). 「도구개발을 통한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윤진. (2009). 「연령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 최은진. (2008).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은희. (2007).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흥권. (2010). 「노인의 생활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령자 집단과 초고령자 집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한경혜. (2013). 한국 베이비부머의 생애과정의 변화와 활동적 노화. 「2013 액티브 에이징코 리아 국제 심포지엄」. 2013. 8. 29.
- 한석태. (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 허준수·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 사업」. 13: 7-35.
- 홍석관. (200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2014). 「2014 OECD 건강정보 통계」
- 보건복지부(2014).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통계청(2013).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013). 「사회조사: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 A시니어클럽(2013). 「사업결과보고서」 자료

박영미(朴英美): 국립안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현재 안동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커뮤니티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정책과 정신건강증진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5)가 있다(pym0317@hanmail.net).

제갈돈(諸葛頓): 미국 아리조나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정책평가, 조직행태, 연구방법론이며 주요논문으로는 “Predicting Knowledge Sharing Intentions in the Public Sector”(2012), “Challenges for Government Innovation in Bangladesh”(2012), “Applicability of Knowledge-Based Innovation System in Bangladesh”(2013) 등이 있다(jagal@anu.ac.kr).

김병규(金炳圭): 미국 켄터키대학(Univ. of Kentuck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복지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 도시재생, 지역개발, 계량분석(GLS, MLE, HLM, Risk Analysis)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Government Support for SME Innovations in the Regional Industries”(2014), “Second-Order Devolu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ANF in the U.S. States” (2010) 등이 있다(bkkim1@anu.ac.kr).

### Abstract

##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Focused on the Typ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the Length of Participation Period

Park, Youngmi

Jegal, Don

Kim, Byungkyu

This study investigated which typ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more positively, and the length of participation period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which are composed of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financial conditions, self-worth, self-efficiency, and depression. For the study, 833 of the elderly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t the time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In results, the education type influences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self-worth, and self-efficiency positively than the original type does. The welfare type influences self-worth and self-efficiency more positively than the original type does. The length of participation period i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quality of the life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results, policy alternatives are presented.

Key Words: senior employment program,,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typ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the length of participation period